

2022-10-24 (2022-37호)

10월 24일 로이터 뉴스레터

▶ 달러/원 주간 전망

• 연준 속도조절론 속 변동성 리스크 여전... 국내외 정책 기대·월말 수급 주목

서울, 10월24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 지속 여부에 따라 변동성 높은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420-1,445원이다.

지난 주말 미국 국채 금리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면서 강달러 압력도 잠시 완화됐다. 연준이 11월 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한 이후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데 이어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일부 연준 인사들의 발언까지 더해진 영향이다.

또한, 일본은행(BOJ)의 달러 매도 개입도 강달러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주말 전 고점을 넘었던 달러/원은 이러한 대외 여건을 반영해 1,420원대로 밀려 이번 주를 시작할 전망이다.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이를 지지하는 경제지표가 나올지 주목된다. 금주에는 미국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와 9월 개인소비지출(PCE) 및 근원 PCE물가지수, S&P 글로벌 제조업·비제조업 PMI 등의 발표가 예정돼 있다.

또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등의 3분기 실적 결과도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다.

아울러 BOJ와 유럽중앙은행(ECB) 정책회의 결과에 따른 시장 출렁임 가능성도 열어둬야 할 듯하다. BOJ는 초완화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ECB는 75bp 기준금리 인상이 폭넓게 예상되고 있다.

또한, 제20차 중국공산당대회가 폐막한 가운데 발표를 연기됐던 중국 3분기 GDP 성장률과 9월 산업생산, 소매판매 등 지표 발표도 주목된다. 또한 9월 수출입 결과도 대기하고 있다.

한편, 최근 국내 단기 자금시장이 급격하게 경색되자 정부는 50조원이 넘는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로 악화일로에 있던 채권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된다면 외환시장 심리에도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월말 수급도 뚜렷한 특징을 보이기보다는 그때그때 시장 상황 따라 형성되고 있다. 국내외 시장 심리가 안정세를 보인다면 시장 참가자들은 재차 달러 공급 수급에 신경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목할 국내 일정으로는 3분기 GDP 속보치 발표와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등이 있다.



※ 달러/원, 달러/위안 3개월간 추이

(편집 유춘식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10월24일(월)

- ⊙ 기획재정부·한국은행: 국회 국정감사 종합감사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회 국정감사 (10:00)
- ⊙ 한국은행: 「CBDC 정책연구 심포지움」개최 (12:00)

10월25일(화)

- ⊙ 한국은행: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06: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IMF 아시아태평양국 국장 면담 (11:30)
- ⊙ 한국은행: 최근 가계 주담대의 변동금리 결정요인 분석(BOK이슈노트 2022-43) (12:00)
- ⊙ 한국은행: 2022년 3/4분기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 (12:00)
- ⊙ 한국은행: 총재 IMF REO 세미나 (15: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KTB 국제 컨퍼런스 (15:00)

10월26일(수)

- ⊙ 한국은행: 2022년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06:00)
- ⊙ 금융감독원: '22년 3분기 ABS 등록 발행 실적 (06: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ADB 총재 면담 (11:00)
- ⊙ 한국은행: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2022년 3/4분기 동향 및 2022년 4/4분기 전망) (12:00)
- ⊙ 통계청: 2022년 8월 인구동향·9월 국내인구이동 (12:00)
- ⊙ KDI: KDI 현안분석 '환율 변동이 수출입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 (12:00)
- ⊙ 한국은행: 총재 은행연합회 간담회 (18:00)

10월27일(목)

- ⊙ 금융감독원: '22.9월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06:00)
- ⊙ 한국은행: 2022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08:00)
-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비통방, 10:00)
- ⊙ 한국은행: 2022년 9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12:00)
- ⊙ KDI: KDI 부동산시장 동향(2022년 3/4분기 (12:00)
- ⊙ 기획재정부: '22년 1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0월 발행 실적 (17:00)

10월28일(금)

- ⊙ 기획재정부: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07:30)
- ⊙ 기획재정부: 1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08:00)
- ⊙ 한국은행: 2022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12:00)
- ⊙ 기획재정부: 2차관 투자플 운영위원회 (14:00)
- ⊙ 한국은행: 2022년 11월 통화안정증권 발행 계획 (배포시)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10월18~25일		중국	수출 YY	9월	4.1%	7.1%
10월18~25일		중국	수입 YY	9월	1.0%	0.3%
10월18~25일		중국	무역수지	9월	81.00B	79.39B
10월18~25일		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	1~9월		16.40%
10월21~27일	11:00	중국	소매판매 YY	9월	3.3%	5.4%
10월21~27일	11:00	중국	도시지역고정자산투자	1~9월	6.0%	5.8%
10월21~27일	11:00	중국	GDP YY	3분기	3.4%	0.4%
10월21~27일	11:00	중국	산업생산 YY	9월	4.5%	4.2%
10월21~27일	10:30	중국	주택가격 YY	9월		-1.3%
10월24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잠정치	10월		50.8
10월24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서비스업 PMI 잠정치	10월		52.2
10월24일	17:00	유로존	S&P글로벌 제조업 PMI 잠정치	10월	48.0	48.4
10월24일	17:00	유로존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잠정치	10월	48.2	48.8
10월24일	21:30	미국	전미활동지수	9월		0.00
10월24일	22:45	미국	S&P글로벌 제조업 PMI 잠정치	10월		52.0
10월24일	22:45	미국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잠정치	10월		49.3
10월25일	22:00	미국	FHFA 주택가격	8월		395.2
10월25일	22:00	미국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8월		16.1%
10월25일	23:00	미국	소비자신뢰지수	10월	106.0	108.0
10월26일	17:00	유로존	총 유동성(M3) 증가율	9월	6.2%	6.1%
10월26일	17:00	유로존	가계대출	9월		4.5%
10월26일	20:00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10월21일주간		204.6
10월26일	21:00	미국	건축허가	9월		1.564M
10월26일	21:30	미국	도매재고 수정치	9월		1.3%
10월26일	21:30	미국	소매재고 수정치	9월		0.6%
10월26일	23:00	미국	신규주택 판매	9월	0.630M	0.685M

10월27일	10:30	중국	산업이익	1~9월		-2.1%
10월27일	21:30	미국	내구재주문	9월	0.5%	-0.2%
10월27일	21:30	미국	GDP 수정치	3분기	2.0%	-0.6%
10월27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0월17일주간		214k
10월28일	00:00	미국	캔자스시티 연은 제조업지수	10월		2
10월28일	08:30	일본	도쿄 CPI	10월		2.8%
10월28일	08:30	일본	실업률	9월		2.5%
10월28일	18:00	유로존	기업환경지수	10월		0.81
10월28일	18:00	유로존	경기체감지수	10월	92.5	93.7
10월28일	18:00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최종치	10월		
10월28일	21:30	미국	개인소득	9월	0.3%	0.3%
10월28일	21:30	미국	근원 PCE 물가지수 MM	9월		0.6%
10월28일	21:30	미국	고용비용	3분기		1.3%
10월28일	23:0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최종치	10월	25.6	59.8
10월28일	23:00	미국	잠정주택판매지수	9월		88.4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10월24일(월)

- ⊙ 휴장국가: 싱가포르

10월25일(화)

- ⊙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10월 서비스업 경기 전망 서베이 발표 (오후 9시30분)
- ⊙ 리치몬드 연방은행, 10월 서비스업 활동 서베이 발표 (오후 11시)
- ⊙ 크로스토퍼 윌러 연방준비제도 이사, '페드나우' 토의 참석 (26일 오전 2시55분)

10월26일(수)

- ⊙ 캐나다은행, 금리 발표 (오후 11시) · 티프 맥클럼 총재 기자회견 (자정)

10월27일(목)

- ⊙ BOJ, 통화정책회의 (28일까지)
- ⊙ 유럽중앙은행(ECB), 금리 발표 (오후 9시15분) · 기자회견 (오후 9시30분) ·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연설 (오후 9시45분)
- ⊙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10월 제조업 서베이 발표 (자정)

10월28일(금)

- ⊙ BOJ, 금리 발표

▶ 금주 세계 5대 이슈

⊙ 혼란 수습할 새 영국 총리는?

급진적인 경제 정책으로 금융시장을 뒤흔든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여당인 보수당 내에서도 반발에 부딪히며 취임 6주 만에 물러났다.

현재 의회 다수당인 보수당은 오는 28일까지 새 총리를 선출할 예정이다. 리시 수낙 전 재무장관, 보리스 존슨 전 총리, 페니 모돈트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31일 새 예산안을 공개할 예정인 제레미 헌트 재무장관은 재정 정책에 대한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수백억파운드 규모의 지출을 삭감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 일본 BOJ 완화정책 고수, 호주 RBA는 속도 조절

달러/엔 환율이 150엔을 넘어 32년 만의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일본은행(BOJ)은 27-28일 정책 회의에서 전 세계적인 흐름과는 반대로 양적 완화정책을 고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BOJ는 채권 수익률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이틀 연속 긴급 채권 매입을 실시해 완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호주의 통화정책 전망은 이보다 훨씬 불확실하다. 호주 중앙은행(RBA)은 이달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전 세계적인 정책 긴축이 곧 정점에 다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대두되기도 했다.

호주의 9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실망스러울 정도로 작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최근 지표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정책 행보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분기 인플레이션 지표(26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ECB, 두 번째 자이언트 스텝 예상

유럽중앙은행(ECB)은 27일 금리를 75bp 인상하리라고 예상된다. 금리 인상 대열에 늦게 합류한 ECB는 지난 두 차례 회의에서 총 125bp를 인상해 역대 가장 빠른 긴축 속도를 보였다.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2% 목표의 다섯 배에 달하는 10%에 가까워 경기침체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더라도 지금은 긴축 속도를 늦추려는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다음 긴축 단계인 보유 채권 매도 개시 시기에 답해야 할 것이다. 또 정책 결정권자들은 갑작스러운 금리 급등으로 수혜를 입은 은행들에 대한 대출 규정 변경에 대한 합의에도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

⊙ 미국 어닝 시즌 본격화

S&P500지수 편입 기업 가운데 300곳 이상이 앞으로 2주간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골드만삭스, 록히드마틴, 밴쿠오브아메리카, 넷플릭스 등은 실적 발표 후 주가가 급등했다.

그러나, 레피니티브 I/B/E/S에 따르면 S&P500 기업들의 이익은 전년비 3% 증가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년 만의 최악의 성적이며, 10월 초 예상치 4.5% 증가보다도 낮아진 수준이다.

이익 성장 둔화는 그동안 미국 주가지수의 낙폭을 제한해주었던 큰 기둥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이번 주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등이 실적을 발표한다.

⊙ 유럽도 어닝 시즌

유럽에서는 에너지, 원자재, 노동 등 비용 급증과 공급망 차질로 기업 이익 증가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레피니티브 I/B/E/S에 따르면 긍정적인 환율 효과 등으로 범유럽 스톡스600지수 편입 기업들의 이익은 3분기 약 28.4%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어닝 시즌 전 예상됐던 증가율 32%나 2021년 3분기 증가율 6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지금까지 나온 실적은 엇갈린 모습이다. 노키아와 에릭슨의 실적은 애널리스트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반면 에르메스는 가파른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세계 2위 주류 업체 페르노리카의 실적은 전망을 상회했다.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칼럼) 난마처럼 얽힌 크레딧시장, 한은에 6개월만 살려달라는데...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10월21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처음 강원도가 2,050억원 규모의 춘천 레고랜드 부동산 PF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를 부도 처리할 때만 해도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올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시장에서선 강원도의 이번 결정이 현직 도지사의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일 뿐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강원도가 법적으로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PF ABCP 투자자들 입장에선 향후 몇 년 안에 법원 판단을 통해 원금을 회수하면서 15%에 달하는 연체 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 손해는 아닐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해당 PF ABCP 투자자가 대부분 기관이어서 여론의 주목도도 크지 않았다.

문제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시장의 자금줄이 말라가고 있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 비율 정상화와 달러/원 환율 상승에 따른 파생상품 담보 가치 하락 여파로 은행들이 대규모 채권 발행에 나서면서 시중자금의 블랙홀이 된 게 조달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소위 우량채로 통하는 특수은행채 시장의 조달 압박은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수요도 적은 다른 크레딧물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긴 만기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시중은행들이 짧은 만기 채권 발행을 늘리면서 단기 자금시장은 더 큰 압박을 받게 됐다.

여기에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PF에 대한 불신으로 중소형 증권사들의 유동성 악화 우려까지 더해졌다. 신규 부동산 PF 사업의 전면 중단, 기존 사업의 부실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PF 대출의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증권사들의 자금 조달 이슈가 시장에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PF ABCP 기피 현상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자단기사채 금리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높은 수준의 금리가 다시 투자자들의 지갑을 닫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졌다.

마치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채담보부증권(CDO), 신용연계채권(CLN) 등 구조화 상품 익스포저가 큰 금융사들이 타깃이 됐던 것을 연상시키는 흐름이다. 당시에는 대형 증권사와 은행들 관련 루머가 재생산되며 크레딧 시장을 그로기로 몰았다.

사정이 급하게 흘러가다 보니 금융위가 나섰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불거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증권사 유동성 우려, 은행채 발행 급증에 따른 시장 교란에 대응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조기 집행, 유동성 우려를 겪는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정상화 일정의 6개월 유예 조치가 일단 크레딧 시장 불안을 일부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크레딧 시장은 말 그대로 크레딧이 생명이라 한 번 디폴트 이야기가 나오면 이미 9부 능선을 넘어버린 게 된다. '당국 개입이 나왔으니 꼭지'가 아니라 '이 기회에 조금이라도 위험 부담을 줄이자'는

쪽으로 시장이 쏠리며 오히려 패닉 셀링이 이어지고 있다.

▲루머와 긴급 대출과 은행채 발행 확대 악순환

그렇다면 금융위의 정책 효과는 얼마나 될까?

현재 92.5%인 LCR을 내년 1월에 95%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걸 6개월 연장함에 따라 추정되는 연말 추가 조달 압력 해소 규모는 5~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은행권은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은행채를 적격담보에 포함시키면 역시 상당한 규모의 추가 자금 여력이 생긴다.

현재 은행권이 규제비율 대비 일정 부분 버퍼를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당장 은행채 발행 압력은 줄어드는 게 당연한 수순 같다.

문제는 채권 조달 시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여기에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지는 것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 각종 루머가 엄청난 속도로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자. 실제로 어려운 회사뿐 아니라 재정이 튼튼한 회사마저도 단기적으로 유동성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실례로, 전날 롯데케미칼은 롯데건설에 석 달간 5,000억원을 금전 대여한다고 밝혔다. 차입기간은 내년 1월 18일까지다. 롯데건설은 6.39%의 이율로 자금을 조달했는데 이율은 국내 4개 시중은행의 3개월 만기 기업일반대출 조달평균금리를 적용했다.

지난 18일 발표한 유상증자 비용까지 롯데케미칼은 롯데건설에 대규모로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자금을 어디서 조달하느냐가 관심이다. 펀드로 운용하고 있던 자금이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은행 입장에선 예금으로 예치됐던 자금이 유출될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은행들은 앞으로 경기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렇게 긴급하게 빠질 자금이 얼마가 될지 예상하기 어렵다. 긴급 대출 요청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 당장 LCR이 100%를 넘는다고 해도 안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중은행들이 몸을 사리는 상황에서 정책자금 비중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 특수은행들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시중은행들이야 예금 금리를 올리면 어느 정도 상쇄할 여력이 있지만 소매금융이 없는 특수은행들이 의지할 수 있는 건 채권 조달뿐이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밝힌 대로 한전에 1조원 손해만 나도 한전의 최대 주주인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6bp나 깎아먹는다. 올해 한전이 21조원 손실을 보면 산은의 BIS 비율은 1.37% 하락한다.

연말까지 추가로 정책자금 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특수은행들의 발행 러시를 타할 사람도 없다. 그나마 시장에서 발행 시도를 할 때 매수세가 있는 것도 특수은행채뿐이다 보니 금리 불문하고 발행을 이어가는 것이다.

▲증권사의 도덕적 해이와 한은의 선택

여기서 증권사들에 대한 시장의 신뢰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만기가 돌아오는 PF ABCP만 문제는 아니다. PF ABCP 차환 이슈가 부각되는 과정에서 증권사 신탁 계정에 난마처럼 얽힌 다른 거래가 줄줄이 엮어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2010년대 저축은행 사태 이후에도 증권사들은 달라지지 않았다.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을 때 위험 관리를 했던 증권사들은 모두 손실을 감수한 반면 끝까지 버티고 당국에 살려달라고 했던 증권사들만 큰 이익을 보며 비상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산운용협회와 증권업협회가 합쳐진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사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업계의 자발적인 투자관행 조절도 여의치 않았다.

10여년간 이어진 저금리와 증권업계의 고수익 추구 경향이 결합하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 신탁 자금으로 장기채권을 매수하는 경향성이 두드러진 것이다. 지난해 5월 이후 시장금리가 1년6개월짜 급등하는 과정에서 결국 문제가 터졌다. 신탁계정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만기는 안 떨어졌는데 내줘야 하는 금리는 급등하다 보니 자금조달의 미스매칭 문제가 심각하게 터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채권 파킹 논란도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심각하니 정책당국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심각한 도덕적 해이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일부 금융사가 무너졌을 때 도미노 효과가 문제다. 이 과정에서 옥석 가리기가 실패하면 1990년대 일본식 대차대조표 불황이 도래할 여지도 커지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6개월만 살려달라고 한다. 코로나 사태 때처럼 한은이 무제한 RP 매입을 통해 일단 연말만 넘어갈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일단 올해를 무사히 넘기고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면 그때 시장이 스스로 살아날 여력이 생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과연 한은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누구도 선불리 답하지 못할 문제다.

한은 입장에선 시장 접근성을 고심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지금은 그나마 금리를 올리면 발행이라도 되지만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자금을 모을 수 없는 상황이면 이미 늦는다는 점이다.

적어도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작동할 수 있도록 투자자들의 심리를 단속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채안펀드는 매수와 매도가 매칭되는 국면에 금리가 과도하게 튀어 오른 물건을 잡아줄 때 시장 안정의 효과가 있다. 대부분 시장 참가자가 한발 물러서 있는데 채안펀드가 시장 조성 자체를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편집 유춘식 기자)

((seunggyu.lim@thomsonreuters.com : +822 6936 1466:))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10월21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1,439.8	-0.8%	-17.4%	-8.6%	유로	0.9862	1.5%	-13.3%	-6.9%
100엔 대비	967.9	0.1%	6.7%	+1.8%	엔	147.66	0.7%	-22.1%	-10.3%
유로 대비	1,409.4	-0.6%	-4.1%	-1.9%	위안	7.2244	-0.4%	-12.0%	+2.7%
위안 대비	197.29	1.6%	-5.2%	-11.1%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다우존스	31,082.56	4.9%	-14.5%	+18.7%
코스피	2,213.12	0.0%	-25.7%	+3.6%	나스닥	10,859.72	5.2%	-30.6%	+21.4%
코스닥	674.48	-0.6%	-34.8%	+6.8%	S&P500	3,752.75	4.7%	-21.3%	+26.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MSCI APxJP	439.70	-1.2%	-30.2%	-4.9%
국고채 3Y	4.495%	28.8bp	269.7bp	+82.2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국고채 5Y	4.638%	43.1bp	262.7bp	+67.6bp	미국채 2Y	4.480%	-1.0bp	375.0bp	+61.0bp
국고채 10Y	4.632%	45.1bp	238.2bp	+53.7bp	미국채 10Y	4.220%	20.0bp	271.0bp	+59.5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1(%)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1(bp)
유가(WTI)	85.14	-0.5%	12.8%	+55.8%	한국 5Y	60.0bp	-0.3bp	37.9bp	-0.7bp
금(현물)	1,657.66	0.9%	-9.4%	-3.6%	일본 5Y	28.2bp	0.2bp	10.6bp	+2.1bp
TR상품지수	3,463.50	-0.9%	3.7%	+24.6%	중국 5Y	111.9bp	1.9bp	70.7bp	+12.1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